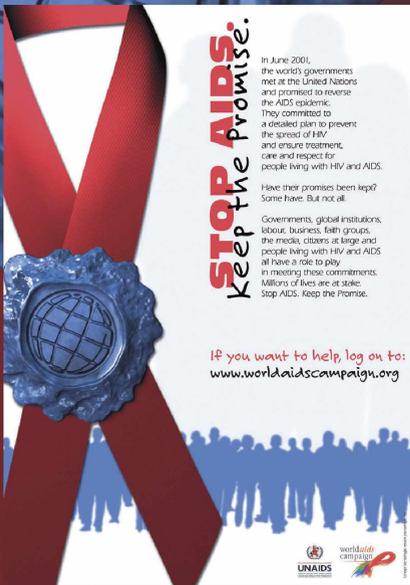


# PHOTO NEWS

제 18회 세계에이즈의 날을 맞아 각 단체에서는 다양한 거리 이벤트를 실시하였다. 올해 세계에이즈의 날 캠페인 주제는 앞서 살펴봤듯이 "Stop AIDS. Keep the Promise"이다. 이 테마는 국내 실정과는 다소 괴리된 면이 있어 에이즈·결핵관리팀 및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"에이즈에 대한 관심과 참여"를 주제로 슬로건은 "에이즈 예방은 나로부터!"로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다. 국내 각 단체들은 국내 주제 및 슬로건에 부합되는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.

사진 편집 실



▲ 제18회 세계에이즈의 날 포스터



▲ 11월 30일 너한에이즈여강 협회에서 실시한 명동거리 캠페인 모습. 군중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해 관동 그레스를 입고 콘죽 및 여방 리플렛을 시민들에게 배포하였다.



▲올라 세계에이즈의 날 종합행사를 주관한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서는 국내 에이즈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'STOP AIDS'라는 조형물을 서울 광장에 설치하였다.



▲서울터, 럽포인, 에이즈119가 공동으로 주최한 김연의 인권회복을 위한 콘서트, 12월 7일 적십자 강호대리 강당에서 실시된 이 콘서트에는 한영애, 나부자전거, 지현 등 가수들이 참석하였다. (사진은 가수 한영애)



▲12월 13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'에이즈 고아를 돕기 위한 왕도대 김 캐션스'를 개최하였다. 이 행사에는 유명 인사들이 다거 참여하여 에이즈 고아를 돕는 데 앞장섰다. 이날 수익금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에이즈 고아를 위해 쓰인다. (왼쪽부터 김래원, 이영애, 조수미)